

지역 소식통

김제자원봉사센터, 힐링 문화체험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지난 21일 시민운동장에서 김제기온공예협회(회장 장숙정) 회원과 관내 청소년 15명이 함께 '찾아가는 힐링 문화 예술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제시민 80여명을 대상으로 '나만의 텀블러 꾸미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탄소중립 실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용할 텀블러를 직접 만드는 힐링 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김제기온공예협회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의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며, 찾아가는 힐링 문화 예술 체험은 오는 5월 20일, 6월 29일 두 번의 활동을 시민운동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진봉면 지사협 제2차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준영)가 22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2024년 1분기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 및 개선점을 공유하고 신규 특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업, 행복담은 계단 나눔 사업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방법을 논의했다.

최준영 민간위원장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제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며 "이웃 주민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열 진봉면장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들에 감사드립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 즐거움 선사

김제시, 27~28일 잔디광장 일원서 열려 지역 자원 활용한 새로운 첫 시도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기존 축제 이미지를 벗어난 새로운 첫 시도로 '2024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을 진행하며 소외된 동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과 2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김제 모악산 잔디광장(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99-2) 일원에서 '2024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번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은 기존 '김제 모악산 축제'라는 이름으로 동부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악산 일원에서 지난 2008년 제1회 모악산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지난해 제16회 김제모악산축제까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변화해 왔다. 이 기간동안 지난

2020년 제13회 축제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 제14회 축제는 온·오프라인 병행 축제로 새로운 시도와 노력 끝에 성료된 바 있다.

특히 시는 올해에는 기존 축제 이미지를 벗어난 '뮤직 페스티벌'로 시민과 관광객, 음악마니아 층에게 새로운 이미지와 관광, 음악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에는 정동하, 김수찬, 손예지, OTWO, Skdm이 출연하고 28일에는 육중완밴드, 강혜연, 서주연밴드, 강예영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과 다채로운 음악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모악산의 생동하는 봄 풍경 속에서 감성 충만한 공연과 포토존, 어린이 관객을 위한 피어로 아트존, 먹거리

리·농특산물 장터, 플라마켓 등 힐링 프로그램은 페스티벌을 찾는 모든이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4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과 연계해 국내 최장수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KBS 전국노래자랑'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편이 7년 만에 개최된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모악산 주차장 특설무대(금산면 계룡로 112)에서 본선 녹화가 진행되며 MC 남희석을 비롯해 현숙, 김성환, 임현정, 홍지윤, 손빈 등 초대 가수가 출연한다.

정 시장은 "2024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은 기존 김제시 서부권 관광이 주를 이루며 소외 받았던 동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의 첫 시도라며 "시민과 관광객, 음악 마니아 층이 다양하게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20일 김제시장애인체육관에서 각 읍면동을 대표하는 농악단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악 한마당이 펼쳐졌다.

김제 읍면동 농악발표회 성황리에 마쳐

각 읍면동 농악단들 예술성 펼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흥겨움과 추임새 가득한 농악 한마당이 펼쳐졌다

고 밝혔다. 이번 농악발표회는 지난 20일 김제시장애인체육관에서 각 읍면동을 대표하는 농악단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특색 있는 농악가락을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흥겨운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유산인 김제농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읍면동 농악단 11팀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7·3호 박동근 선생의 대동 한마당 특별공연과 함께 각 읍면동 농악단들의 다양한 예술성과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열띤 공연이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창업경진대회 공모... 내달 16일까지 접수

우수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지원

완주군이 2024년 완주군 창업경진대회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22일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는 공모사업에 도에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업경진대회는 창업문화 확산과 (예비)창업자들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진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완주군 내 사업장 개설 예정인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단체) 또는 3년 미만의 기창업자(개인 또는 법인)를 대상으로 5월 16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심사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발표심사를 통

해 최종입상자 4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입상자에게는 창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경진대회 종료 후에도 창업 컨설팅과 입주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창업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역량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https://wj-changup.wanju.go.kr) 또는 전화문의(063-290-24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모집

아동 권리 탐색해 정책 제안 활동... 내달 3일까지 접수

완주군 아동유무부즈퍼슨사무소가 아동의 직접적인 참여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발걸음에 나섰다.

22일 완주군은 아동참여기구인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을 5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이 일상 속 권리 침해 상황을 스스로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벌인다. 모니터링단은 완주지역 내 만 18세 미만 20명, 대학생 10명, 전문가 자원위원 10명 등 4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아동은 군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완주군 아동친화도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wanjuafc)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5월 3일까지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활동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기간 동안 2024년 모니터링 주제로 선정된 기후위기와 관련된 완주군의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는 정책 제안 간담회와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에 전달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 운영은 완주군 아동유무부즈퍼슨사무소와 아동권리보호 전문가 관련 굿네이버스 전북지부가 협력해

맡는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스스로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해 직접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니터링단의 의견이 완주군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유무부즈퍼슨사무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며, 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활동을 하는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전국 최초로 완주군에 2022년 10월 문을 열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제682회 지평선아카데미 '한국의 아이덴티티: 국토박물관 순례' 강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25일 제682회 지평선아카데미에 유홍준 명지대 교수를 초청해 '한국의 아이덴티티: 국토박물관 순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홍준 교수는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당선 이후 영남대 교수, 2004년 제3대 문화재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사장,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비소설 최초의 밀리언셀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와 '한국미술사 강의', '국토박물관 순례' 등이 있으며 1998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부문 간행물윤리상, 2003년 만해문화상을 수상했다.

이번 특강에서 유 교수는 각 시대의 대표유적을 찾아서 한국의 미술품, 조형물, 문화재 등을 통해 명작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우리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다.

이번 지평선아카데미는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5월 둘째주 목요일(9일)은 가수 윤항기를 초청해 '진실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평선아카데미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별도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참석 가능하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강연 영상이 김제시 홈페이지와 사이버학습센터에 업로드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